

“
영화〈암살〉과〈밀정〉속에도
태극기와 청진기를 품고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킨
의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

열사가 된 의사들

의사 독립운동사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편 | 양장판 | 320쪽 | 15,000원

청진기와 태극기를 품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며 상하이와 내몽고, 멀리 울란바토르까지 대륙을 누빈 의사(醫師)들의 대서사시. 영화 〈암살〉과 〈밀정〉속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고문과 투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의 스토리를 최초로 담은 책. 이태준, 김필순, 박서양을 비롯해 김산과 이미륵 등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오롯이 담겨있다.

